

2012년 가을학기
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믿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어떠하심

메시지 10

빛

성경: 요 1:4-5, 9, 12-13, 8:12, 12:46, 요일 1:5, 7, 고후 4:6

I.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빛이시다—요 8:12.

II.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—요 1:4-5, 9.

- A. 그리스도는 우주의 참 빛이시며 그분은 높은 곳에서 임하는 돋는 해와 빛나는 새벽과 의로운 해이시다—눅 1:78, 계 22:16 하, 말 4:2.
- B.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물질적인 빛은 새 창조물을 위한 영적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—고후 4:6, 5:17.
 - 1. 빛은 생명을 발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.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다—요 8:12, 1:9, 12.
 - a.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.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원칙이다.
 - b. 생명은 빛이 비침으로부터 온다. 빛이 들어갈 때 생명이 흐른다.
 - 2. 창세기에서 빛은 옛 창조물을 위한다.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빛은 새 창조물을 위한다—요 1:4-5, 9, 12, 8:12, 12:36, 고후 4:6, 5:17.

III.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—요 8:12, 1:4.

- A. 그리스도는 유일한 빛이시다. 그분을 떠나서는 빛이 없다—요 12:46.
- B.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. 만일 우리가 빛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져야 한다—시 36:9 하, 비교 사 50:10-11.
- C.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,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,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비추는 빛이 된다—요 1:4-5, 9.
- D. 우리 속에서의 빛의 비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증이다—요 1:12-13, 요일 1:5, 7, 3:1-2.

IV. 그리스도는 어둠 안에서 비치기 위한 큰 빛이시다—사 9:1-5, 마 4:16.

- A.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,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—마 4:16.
- B. 그리스도의 사역은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빛으로 시작되었다. 이 빛은 죽음의 그늘에 비추는 그리스도 자신이다—요 12:46, 8:12.
- C.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비추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. 그분이 큰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—행 9:3, 22:6, 26:13.

V. 산꼭대기에서의 주 예수님의 변형, 곧 비추심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의 오심, 곧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—마 16:28—17:2.

- A.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비춤이다—막 9:1-3.
- B.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 예수님이다—눅 9:27-29.

C.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이 비춤 아래 있을 때, 우리는 왕국 안에 있다—골 1:12-13.

VI. “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띠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”—사 50:10-11.

A. 영적인 어둠은 인간적인 불로는 제거될 수 없다. 빛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—요일 1:5, 시 36:9.

B.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로 말미암아 영적인 길을 갈 수 없다. 도리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—사 50:10.

1. 영적인 빛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.

2.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. 우리는 우리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—사 50:11.

VII. “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”—시 36:9.

A. 9절에 있는 첫 번째 빛은 비추는 빛이고 두 번째 빛은 사물의 참된 상태를 가리킨다.

B.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사물의 참된 상태를 본다.

1.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떤 것의 참된 상태를 본다—요일 1:5, 7.

2.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이들만이 사물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—요일 1:7.

a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산다면 사물의 참된 상태는 빛처럼 분명하고 밝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물의 내적인 본성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.

b.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때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알 때이다—행 9:3-5, 요 1:4-5, 9, 고후 4:6.

VIII.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셨다—골 1:12.

A.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빛 안에 있는 것이다.

B.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빛 안에 있고,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리기 시작한다—시 36:8-9.

IX. 우리는 빛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빛 자체이다—엡 5:8.

A. 빛은 하나님의 표현에 있어서의 그분의 본성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—엡 5:8, 요일 1:5-7, 마 5:14.

B.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,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—요일 1:5, 7.

X.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은 우리 속에 있는 두 등불, 곧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람의 영으로부터 빛 비추심을 통한 것이다. 가장 많은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여는 사람이다—요 4:24, 눅 15:8, 잠 20:27, 고후 3:18.